

장애인의 날 장애우와 일체감 느껴

한전 포천지점 사회봉사단 온몸으로 奉仕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사회봉사단(단장 이영승 지점장) 14명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천시 가산면 진북리 소재 나눔의 집 중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은 관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장애우 30여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차량과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천지점 사회봉사단원들은 차량(15인승) 2대 지원 및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단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기금으로 생필품(유류구입권) 5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나눔의 정신을 실행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장애우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면서 그들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더욱이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단원들은 장애우 차량이 동, 자원봉사활동에 몸을 사리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주위 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며 나눔의 집 직원들로부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이영승 지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를 통하여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포천시 우수협회 회장 김병균

“올해 안에 K1대회 유치 위해 노력하겠다”

임원, 자문위원, 고문단 하나되어 우수발전 초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우수협회는 훌륭한 선수들을 키울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포천시가 우수 발전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월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포천우수협회 김병균(43·사직)회장이 밝힌 취임 소감이다.

김 회장은 포천지역은 우수종목의 미개척지로 이번 우수협회 창립으로 우수선수 5체급 5명의 선수를 영입하여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거쳐 5월에 실시하는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우수협회가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일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선수 발굴에 대해 경기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포천에서 활동중인 합기도, 태권도 선수들도 우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장비, 의류 등 우수 관련 장비들을 보강하는 등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노력하여 우수 분야 조성되면 올해 안에 K1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회장은 우수협회 20여명의 임원과 10여명의 자문위원, 고문단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포천시 우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는 1989년 창립되어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6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물론 세계 대회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⑦

리더의 지략이 승패를 좌우한다

2007-포천YMCA리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우리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야구단 단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2007”이라는 메시지를 안고 시작하는 우리 야구동호인들의 리그는 한국야구위원회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출발하였고 아무사고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리그의 진행은 각 팀의 단장과 감독들의 리그경기의 경쟁에 앞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멋진 모습이 있기

에 가능하며 운영자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정식 규칙의 운동장 한국 없지 만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스포츠발전의 선구자들로 봉사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들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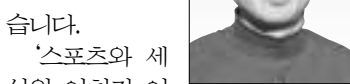
흔히 우리는 운동을 몸으로만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머리로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는 작전을 통하여 치고 달리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춤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06년의 세계WBC야구대회와

대만에서의 아시아대회를 비교해 보더라도 감독들과 선수들의 작전 구사 및 인지능력과 정신력은 확연히 경기의 결과를 미리 짐작케 하였습니다.

리더들의 생각과 지략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감독의 과감하고도 명승부사적 기질의 작전은 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기기 위하여 조잡한 지략으로 승부를 내는 리더는 관중이 먼저 알아보고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월빙 부사의(不思議)

속담(俗談)

속담(俗談)이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격언(格言)’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속담이나 격언은 표현한 다를 뿐 실은 ‘같은 뜻’을 지닌 말이다. 속담이란 민중(民衆)의 지혜(智慧)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口傳)되는 민간 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격언이란 인생에 대한 교훈(敎訓)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글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금언(金言)이라고도 한다.

속담의 요체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는 민중의 ‘응축된 지혜’가 담겨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이며 셋째는 ‘교훈’이나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짧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속담은 이처럼 민중 속에서 자생한 ‘생활철학’이고 그들 스스로 가르치는 ‘교훈’이고 그들 스스로 지키고 경계하는 ‘가이드라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민간 격언’

민’이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는 말도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살 때 머리에 입력된 모든 정보(情報)와 습관(習慣)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말을 배우고 그 말의 의미(意味)를 하나하나 머리에 담아두기 시작할 때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잘 잘못을 분별(分別)하기 시작할 때 잘 알려주고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도록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 때 알려준 모든 ‘의미’와 ‘생활습관’이 평생(平生)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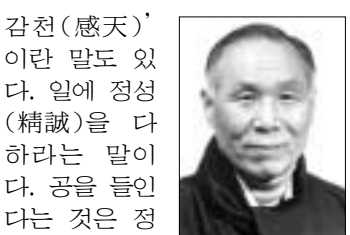
‘낫말은 새가 들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다. 세상에 비밀(秘密)은 없다는 말이다.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知者無)’ 옛 어른들이 경계(警戒)하는 말이다. 생각은 하되 표현(表現)을 절제하라는 말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이 비수(匕首)가 되어 바로 되돌아오기 때

문이다.

‘기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모두가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가르침이다. 조심조심 말을 하고 심사숙고(深思熟考)한 후에 말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상대를 배려(配慮)하고 상대방의 입장(立場)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비하(卑下)하거나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행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만 해서 소용이 없다. 의견(意見)만 분분해서도 소용이 없다. 무언가 ‘실행(實行)’에 옮겨야 한다. 누군가 ‘시작(始作)’을 해야 한다.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자신이 해야 한다. 자기 발로 걸어야 한다.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지성(至誠)이면



이규임 민족문화연구원장

속담의 요체는 다음 네 가지이다.

Essay

美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윤순옥

요 며칠 화창한 날씨에 가까운 산에는 연초록 잎새들이 앞다퉁 나오는 바람에 희색 빛의 삭막함을 아름답게 변모시켰다. 숲길 때마다 나무에서 풍기는 생명수처럼 산뜻함이 기분을 환하게 한다.

생명의 소중한 물 틀바구니 속에서도 번식의 능력을 다하기 위해 힘차게 뿌리내리고 꽃을 피운다.

죽음 앞에 용감한 자 누가 있으며 이유 없는 가족의 죽음 앞에 원통하지 않은 이 어디 있으리오.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이 뉴스에 뜨면서 범인이 동양계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중국이나 일본 그런 쪽이 아닐까?

조마조마한 우려 속에 범인은 안타깝게도 한국인 이민자였더니 가슴속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듯 답답한 고통이 떠나질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말할까 초조했는데

상상의로 그들은 포용과 관용으로 친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여덟 살에 이민 온 조순희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낯선 땅에 이민 온 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 가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에서 잘 헤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했던가? 미국인의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인이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진심 어린 충고를 우리는 그냥 듣고 넘기기에 너무도 감동적이다. 울려 쏟아지는 눈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서른 두 명의 죄 없는 죽음을 당한 영혼 앞에 깊은 머리 숙여 명복을 빌었다. 또한 불쌍한 가해자인 한국인에게 똑같이 영혼을 위로해준 대학생들도 과연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각국의 젊은이를 증오했고 있는 것 같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우리동포들은 그 강한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미국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의지에 강한 포천의제2중학교는 한국인이라고 했다. 수많은 인종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노력은 우리 땅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들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고 현지직업을 익숙히 할 줄 알아야 할까 더 큰 고민으로 남게될까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을 보낸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일 것이다.

사람들은 5·60년대의 가난을 잊지 못하고 있다. 가난했기에 불편한 점은 있었겠지만 외로운 세상 때문에 공포에 떨지는 않았으니까 그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다.

소용하고 평화스러운 세상 만들기 세계정상이 마음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 넓은 창공에 띄우고 싶다.

자유기고

‘여자가 바로서야가정이 바로 선다’



이은미 주부영어학원 이사

4월18일 2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축협 한우리부녀회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덕희 교수 초청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됐다.

초록색 니트 드레스에 어울리게 걸치고 단상에 은은한 조명 불빛 잔잔한 음악소리에 지극 이 눈을 감고 ‘내 나이 50년’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54세 나이에 비해 젊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나이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멋진 여성이란 항상 맑은 일에 몰입하며 죽는 날까지 자신을 관리하고 당당한 삶으로 웃고 사는 것이 비법이라고 밝혔다.

성숙이란 반성이란 효소가 가미되어 발효하는 것이며 “비교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마라. 그냥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자” 고인 물은 썩는 것처럼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라고 강조했다.

오랜만에 접한 강연이 너무 재미있고 많은 것을 공감하며 환한 웃음으로 우린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포천축협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기회에 정덕희의 삶, 수다, 토라한 책을 구입했다. 나도 당당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여유로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유기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김은숙 주부영어학원

“위하여” 찌뽀 찌뽀 힘찬 외침이 좁은 공간에 메아리친다.

눈이 들고 부딪히는 견제의 잔속에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뚫고자하는 어른들의 훈훈한 마음을 가득 담아낸다.

지난해 졸업한 초·중·고급생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도록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이모임을 ‘사랑회’라 칭하였다.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사랑을 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한 모교를 사랑하자는 뜻인 것 같다.

가산초등학교 축구부는 후원이 참 잘 되어 있다. 각종 조기축구

회를 비롯하여 동문들의 후원에 힘입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꿈과 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가산만이 손꼽는 자랑거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축구를 함으로서 맺어진 학부모들의 인연, 그 인연의 끈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소중한 만남의 축배를 들었다.

학부형들의 모임 ‘사랑회’와 ‘가산초축구부’를 위하여!

자유기고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명순 주부영어학원 소울유치부장

시민안전구조 봉사대 총무로서 차 봉사를 하기 위해 일찍부터 서둘러 포천실내체육관에 갔더니 구호대장님(김순임) 혼자 바빠서 짙 짙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정신지장애자분들이 준비도 안되었는데 빨리 달라고 해서 혼자 당황했다고 한다. 물이 많아 빨리 데워지지는 않고 조그만 커피포트를 준비하여 차례차례 커

피와 녹차를 대접해 드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날씨는 추워 서둘러 빨리 마시려고 줄서 기다리다.

코를 만지면 ‘커피요?’ 하며 고개를 끄덕 10시부터 오후 3시30분 까지 계속 물 당번만 하니 뜨거운 물을 손에 붓기도 하고 다리와 허리가 빠근함이 온다.

마라톤을 하며 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다른 대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 따라 장애인 노래처럼 하느라 하느라 부르기도 하며 커피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내면 공이잠마가 와서 청소 잘 한다고 쌀 1포 준다고 했다. 그리고 좋아서 춤을 추고 신바람이 났다.

천진만만한 소녀처럼 포천시 행사 때에 공이잠마가 있는 자리에는 상품 한 점씩은 주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공이잠마는 근내면 청소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러 다니면 집에 일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커피와 녹차를 생수7통과 종이컵 1박스가 없어지고 모자라서 종이컵을 더 준비해서 드리고 행사가 끝나니 오면 비가 그치는 것이다. 우리도 마무리를 하고서 시내 나와서 짬뽕 한 그릇씩 먹고 송우리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장사 준비를 하러 오는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